

민주노동당 중앙위 '비대위에 모든 권한 위임'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2.19 18:28

[사진1]

[3신/00:48] 민주노동당 중앙위 '비대위'에 모든 권한 위임하고 폐회 이석행 위원장, 당 중앙위 참석중 외조모 부고 소식 접하기도

민주노동당 10차 중앙위는 상정된 8개 안건과 관련 수정동의안들에 대해 격한 논쟁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만장일치로 안건들을 통과했다.

천영세 직무대행은 이날 중앙위 폐회 직전에 "당이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고 이제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벗고 비대위를 설립하며, 중앙위가 막강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노동당 혁신과 재창당, 총선 대응을 위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등 혁신과 총선승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중앙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전략공천 부분. 김인식 중앙위원은 전략공천안 자체에 대한 폐기를, 정성희 중앙위원은 전략공천 존치와 함께 1번에서 6번 비례후보자들에게 대한 개별투표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위는 찬반표결을 통해 '정성희안'을 가결했다. '전략공천'안이 통과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재정위기 타개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먼저 구조적 당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써 중앙당직자 임금, 지역조직 활동비 등과같은 '불요불급'한 지출 이외의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 원칙아래 집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부채는 4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 미지출로 인한 업체 불만과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법정소송 가압류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부채변제는 채권자와 상의해 총선이후로 최대한 연기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재정수지 개선방안으로 소득에 따른 당비차등제 도입안을 마련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단체들과의 토론회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재정혁신기금과 총선승리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덧붙였다.

마지막 8호 안건으로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에 '분열을 딛고 혁신-재창당, 총선승리로 새로운 진보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중앙위 특별결의문과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총력투쟁을 현장 발의한 특별결의문'이 제출됐고 22시 50분경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천영세 의장은 폐회에 앞서 "비상시기에 안을 내봤고 총선대응 관련해 추천위, 심사위도 없고 단지 비대위만 있다"며 "우선 비대위는 5-7명 정도로 구성해 몸집을 가볍게 해 비상국면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대위 구성방침을 설명했다.

천 의장은 이어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보자"며 당원들의 일치단결을 요청하면서 "오는 4월 9일 총선을 끝내고 정식 지도부 선출 공고를 내겠고 하루라도 빨리 공식지도부를 꾸린 후 물러가겠다"며 당 혁신과 결속, 총선대응 등에 주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 중앙위 분위기에 대해 정형주 성남중원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중앙위가 끝까지 유지됐고, 민감한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일단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은 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그 안에서 제기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와 탈당건을 논의 끝에 채택치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에 대해 탈당과 분당을 획책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중앙위에 참석중 외조모 부고를 접하고 충북 청양 학당리 소재 청양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내려갔다. 21일 발인한다.

[사진2]

[2신/20:25] 당 중앙위원들 '초고속'으로 '안건 만장일치' 처리

천영세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았다.

먼저, 회순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회순은 ▲1번 안건으로 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2번 안건으로 동시 당직‧공직선거 일정 확정, ▲3번 안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4번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 ▲5번 안건은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 추진 결의, ▲6번 안건은 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안, ▲7번 안건은 재정위기 대책과 상반기 예산 승인, ▲8번 안건으로는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채택 건 순으로 결정됐다.

현장 발의된 수정동의안 안건으로는 ▲수정동의안 1호=당원직선제를 통한 비대위 구성안 ▲수정동의안 2호=비대위 혁신-재창당준비위원회 삭제 및 총선선대위 구성안 ▲수정동의안 3호=비대위로의 중앙위 권한위임을 최고위 권한위임으로 바꾸자는 안이 발의됐다.

20시30분 현재 수정동의안의 안건 채택 여부에 대해 찬반을 물었고 모두 부결됐다. 이후 변경회순에 따른 원안 처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큰 잡음 없이 원안이 만장일치 형식으로 속속 통과되고 있으며 20시 30분 현재 1호에서 4호 안건까지 만장일치 통과됐다.

3호 안건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경우 광주광산 지역이 분구될 상황에 있고 이에 따라 중앙당이 마련한 2월20일 시한의 선거공고 일정을 2월 중으로 수정했고, 당직공직 선거 관련 시한, 기간,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 중 20일 이상을 삭제하고 원안 통과됐다.

10분간의 정회를 마치고 20시40분 회의가 속개됐다. ▲5호 안건인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 추진 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위 현장 열기는 뜨겁고 시간이 흘러도 중앙위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원안에 대해 중앙위원들은 큰 이견을 내지는 않고 간단한 질문과 응답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을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사진3]

[1신/18:35/2월19일] 당 혁신-총선대응 체계 구성 등 관심 집중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가장 심각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19일 오후 6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차 중앙위가 열릴 예정이다.

19일 현재 중앙위원 총수는 탈당자를 제외한 355명이고 이중 사고 5명으로 총원은 350명이고 이들 중 당비미납자도 수명 섞여있는 것으로 확인돼 중앙위 총원수는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노동부문 중앙위원은 70여 명이다.

민주노동당이 중앙위에 제출한 주요 안건으로는 ▲민주노동당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 추진 결의 ▲제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 ▲동시 당직‧공직선거 일정 확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 ▲재정위기 대책과 상반기 예산 승인 ▲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 채택 등 모두 8종이다. 이날 중앙위 회의의 정상 진행 여부와 함께 각종 쟁점 현안들 처리를 통해 현재의 당내 혼란을 넘어 혁신으로 이어질지도 큰 관심사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대선이후 결과분석 등을 놓고 당내 의견그룹들이 격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평등파(중앙파) 소속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 전 소장 등이 당규로 금지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북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중북론과 패권론을 놓고 당내 일부 의견그룹이 탈분당을 극력 유도하는 상황이다.

이후 심상정 비대위가 구성됐으나 특정 정파가 마련한 안을 당 혁신안으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함으로써 비판에 직면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당원들에 대한 제명 처리를 놓고 격한 논쟁 끝에 대대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그 즉시 비대위원들이 대대현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유회되기도 했다. 이후 천영세 의원이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탈분당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한청 등의 '민주노동당 지지단체'들이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중앙위 개최에 앞서 천영세 직무대행 등과 연속 간담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사수방침을 결의하고 혁신적 대책마련 등을 통한 총선대응 체제로의 조기전환 등에 주력한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당을 만들고 지지하는 단체로서 당 운명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등 “민주노동당 분당 ‧분열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민주노동당 10차 중앙위 회의는 지역 참가자들 참석이 끊이지 않고 있어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직무대행,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한도숙 전농 의장, 김덕윤 전여농 의장, 강기갑 의원, 현애자 의원, 최순영 의원, 권영길 의원 등이 중앙위 좌석 맨 앞 열에 착석해있다.

[관련기사]

<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